



그리스, EU 예산 통제 계획에 격분

김혜란 연구원

■ 그리스 재무장관은 2차 구제금융을 전제로 한 그리스의 재정주권을 유로존에 양도하라는 독일의 제안에 대해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힘.

-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 1,3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리스의 세금과 재정지출에 대한 주권을 유로존 예산위원회(budget commissioner)에 양도할 것을 제안함.
- 제안서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가 EU와 IMF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하는 경우 예산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그리스 정부 지출에 앞서 부채 상황을 강요하는 것임.
- 그러나 이에 대해 그리스 재무장관은 재정적 도움과 국가 주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격분하였으며, EU 집행위원회도 독일의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침.

■ 그러나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리스 정부는 재정주권 양도를 떠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,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번 주에 그리스 토론을 재개할 것임.

- 그리스는 3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144억 유로의 채무상환을 위해 새로운 구제금융이 필요하며, 그렇지 않으면 최근 60년 동안 부도를 맞는 최초의 선진국이 될 것임.
- 이미 EU와 IMF는 구제금융 승인을 전제로 그리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한 상태로 3년 내 15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삭감과 2012년도 GDP의 1% 재정적자 감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 IMF는 그리스 정부가 2020년까지 부채비율을 GDP의 120%로 감소하기 위해 제안서 내용대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 1/27, 1/29)